

# 여성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이용과 결혼의 안녕 및 희망의 관계

-문화상대주의와 강점관점에 기반한 지원사업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현경자

(우리사회복지연구소)

## [요 약]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과 결혼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이용이 실제로 이 여성들의 긍정적 변화를 도와 부부갈등인식 감소와 결혼의 안녕 및 희망에 기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상대주의와 강점 관점에 기반 한 지원사업을 수행해 온 전국의 36개 기관들을 통해 수집된 여성결혼이민자 558명의 설문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예측대로, 지원사업 이용기간, 서비스 이용 빈도 및 이용서비스의 수로 측정된 지원사업 이용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보고한 긍정적 변화와 정적으로 연관되었고, 그런 변화는 이어서 부부갈등인식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으로 측정된 결혼의 안녕 및 희망에 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또 긍정적 변화는 결혼의 안녕을 저해하는 부부갈등인식을 낮추어 결혼안녕을 강화하고, 이어 결혼안녕은 희망에 기여하여 이러한 간접경로로 희망을 도왔다. 이 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는 국내거주기간 및 한국어 능력이 지원사업 이용과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했을 때 지지되었지만, 아울러 지원사업 이용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이용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긍정적 변화를 도와 희망을 키우며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촉진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부부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지원사업 이용의 순기능을 강화하면서 부부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적 요소들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로 논의되었다.

주제어: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부부갈등, 결혼의 안녕, 희망

\* 이 연구는 중앙공동모금회가 지원한 2006, 2007 테마기획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중간평가와 지원방안 연구를 위해 2008년 하반기에 수집된 자료의 일부를 이용하였다. 그 사업을 지원해 준 공동모금회와 자료수집에 참여한 36개 수행기관들과 실무자들 그리고 조사에 응해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감사한다. 아울러 이 논문의 개선점에 대해 유익한 제안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 1. 서론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남성과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성장한 아시아 여성 간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가족구성원의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정부는 2006년 4월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공표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sup>1)</sup> 이후 민관의 주도 하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일례로 2006년에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개소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는 21곳에 불과했지만 2012년 현재 206개소로 6년 사이에 10배로 늘어났다(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 2012). 이 부류의 기관들이 지원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은 국제결혼을 선택할 만큼 도전의식이 강하고 다문화적 감수성과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문화적 잠재력이 있지만(신영화, 2010),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한국인 가정에 홀로 편입되어 사회문화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특징이 있다. 또 이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가족갈등, 정보의 제약, 저소득, 외로움, 정체성의 혼란 등 스트레스 유발요인들에 취약한데 그런 도전들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공식 및 비공식적 자원이 제한되어 적응의 부담이 크다(김이선 외, 2006; 김순규·이주재, 2010).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사회문화 적응력을 키우며 또래의 결혼이민여성들뿐 아니라 주류사회 한국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또는 주요한 통로를 제공하고 있어 이 사업이 기획의도 대로 여성결혼이민자와 이들의 결혼생활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다문화가족을 돕는 실천가들이나 한국인 남편들의 경험을 들어보면(신영화, 2010; 최지영, 2013)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구사력과 생활적응력 향상, 자신감 증진, 한국문화와 배우자에 대한 이해, 가족관계 향상 등 다양하고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여 부부의 화합과 결혼의 안녕을 도우며 이들의 희망을 키우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이 종족과 문화가 다른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시험해보는 시금석이 되며<sup>2)</sup>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기여하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통찰, 경험, 자료 등의 축적을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정책입안자 등의 관점에서 요구되고, 실제로 학계와 현장의 관심을 반영하는 많은 연구들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sup>3)</sup> 그러나 이들 가운

- 1) 이 연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한국생활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모든 직접서비스와 지원프로그램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된다.
- 2) 이 사업은 한국인과 관계를 맺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며 국적까지 취득할 수 있는 '정주형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물론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 3)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 지원서비스 실태 및 효과적 운영 등과 같이 서비스 전달체계와 운영방식 또는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많고(예: 정상기·정윤수, 2010; 강복정, 2012), 지원기관이나 종사자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라휘문, 2011), 지

데서 지원사업의 이용효과나 기여도를 여성결혼이민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의외로 드물고, 이에 대한 논의는 주로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참여경험을 다룬 연구들(예: 김연수, 2010; 이선혜·김은재, 2012 참조)과 사업 수행기관이나 지원단의 사업보고서(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a) 등에서 제한적으로 발견된다.

지원사업의 이용 여부나 특성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적응을 다룬 연구들에서도 주요 변인으로 고려된 경우가 드물다. 그 동안 국내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된 실태조사(예: 보건복지부, 2005; 김승권 외, 2010), 상업적인 국제결혼의 부작용과 이 여성들의 인권유린 및 피해를 다룬 사례연구(예: 이금연, 2003) 그리고 가족갈등과 문화적 차이 등 한국생활 및 결혼생활 적응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 부류의 연구들, 예를 들어, 부부갈등, 결혼만족, 결혼안정 등 결혼의 안녕이나 이주여성 개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처전략, 정신건강 등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지원사업의 이용 보다는 그것으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특성들, 예를 들면, 한국어 능력이나 의사소통을 예측변인으로 고려한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다(예: 김오남, 2006; 권복순, 2009; 서해정·김형모, 2009; 김순규·이주재, 2010; 임혁, 2010). 보다 최근에 지원서비스의 이용기간이 길수록 결혼이민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고(현경자, 2012a),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가족이 함께 자주 참여하고 이주여성이 한국어 교육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의 효능감이 높음을 보여준(김혜원·임춘희, 2012) 연구들이 있지만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이용효과나 기여도에 대한 연구는 지원사업의 실천적 측면, 즉 관점과 방향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와 목적 달성을 알아보기 위해 필요하며(김상곤 외, 2012)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게다가 근래에 결혼이민여성 부부의 이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 2012) 다문화가족의 해체 방지에 유용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서도 그런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목적은 2008년에 제정된 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결혼이주민의 정착과 적응을 도우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이를 위한 세부목표들은 언어와 문화교육을 통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 다문화가족의 관계증진, 지역사회 통합 등을 포함하는데(강복정, 2012), 이들은 대부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각 목표와 관련된 서비스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이용해야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이용효과를 알아봄에 있어서 이용기간 뿐 아니라 이용 빈도, 이용서비스 수 등을 포괄하여 살펴보고 그것이 단기성과에 해당되는 이들의 긍정적 변화와 연관되는지, 그리고 그런 변화는 지원사업의 취지대로 당사자의 희망과 부부의 화합, 결혼만족, 결혼안정 등을 포함하는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 중에 출산, 가족반대, 취업 등으로 중도탈락자가 적지 않고(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a), 이들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임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김이선 외, 2012) 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며 지원서비

원인력의 다문화 역량(황미경, 2012) 등을 주제로 다룬 것들이 발견된다. 이용자의 관점에서는 서비스 이용률 및 이용형태를 밝힌 실태조사와 서비스 접근성과 서비스 만족도의 관계, 서비스 이용결정요인 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최근에 이루어졌다(김안나·최승아, 2012; 도유록, 2012; 서지은·최현미, 2012 참조).

스 이용의 활성화와 그 효과를 담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과 결혼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이용이 실제로 이 여성들의 긍정적 변화를 도와 결혼의 안녕 및 희망에 기여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자주 장기간 이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는지, 또 그런 변화는 이 여성들이 느끼는 희망과 부부갈등 감소 및 결혼의 안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조사하였다.

## 2. 문헌고찰

### 1)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이주 추이와 특성

국내에 정착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수는 2013년 1월 기준으로 국적취득자(109,243명, 46%)를 포함하면 총 235,947명에 달한다. 출신국별로 보면 중국이 57.2%(한족 24.8%: 조선족 32.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출신국은 베트남(22%), 필리핀(6.3%), 일본(4.7%), 캄보디아(2.4%) 순으로 이 7개국 출신 여성들이 전체 결혼이민여성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3).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유입은 입국 시기와 확산과정에서의 특징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 2005; 윤혜미, 2009; 현경자, 2012a). 구체적으로 첫째 부류는 1980년대 말 이후 중하층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주류이고, 이들은 1992년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대거 입국하여 국내거주기간이 평균적으로 길다. 둘째 부류는 1990년 전후와 그 이후에 통일교와 같은 특정 종교단체의 주선에 의해 또는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한국남성과 결혼한 일본, 필리핀, 중국계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끝으로 셋째 부류는 2000년 이후 상업적인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계 여성들과 친지나 친구 소개 또는 연애로 결혼한 비율이 높은 중국계 여성들이 주류이다(김승권 외, 2010). 이 중 동남아시아계 여성들은 빈곤의 탈피를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택한 경우가 많아 취업으로 자신과 원가족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려는 동기가 높고, 교육수준과 연령이 낮아 한국인 남편과의 연령차가 매우 크다.<sup>4)</sup> 이 셋째 부류의 대거 유입은 국제결혼이 정점을 이룬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고, 결혼이민자가족이 국가정책의 대상으로 부상하는데 기여하였다(최종렬, 2008).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상과 같이 입국시기, 종교, 연령대, 국제결혼과정 등이 출신 국가별로 중요한 차이를 보이거나 각각 고유한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소수자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여성들은 젠더와 세계화 및 국제이주 현상으로부터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고, 대다수는 친정 그리고/또는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이면서 아내이자 어머니라

4) 2009년도에 실시된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이 부부들의 평균 연령차는 17세 이상으로 결혼이민여성 부부들의 평균 연령차인 10.1세 보다 훨씬 컸다(김승권 외, 2010).

는 가족 내의 지위를 가지며 동시에 출신국과 이주국의 시민"이기도 한 복합적인 지대에 위치하고 생애경로가 초국가적이다(보건복지부, 2005: 56).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처럼 복잡하고 다중적인 삶의 주체이고 대부분 두문화인 또는 다문화인으로서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현경자, 2012b).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결혼이민은 외국여성이 단신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의 삶 속으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서구의 이민국가에서 보편적인 가족동반이나 가족합류 이민과 차별화되는 특수성이 있다(엄한진, 2011).

## 2)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제도로서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이용자의 변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한국생활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정주 이주민의 사회통합 지원과 국제결혼 가족들이 직면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이선·정해숙 외, 2012).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및 증설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점에서 민관에 큰 차이가 없다(현경자, 2012a).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사업도 한국어교육, 문화이해교육, 멘토링 등의 생활적응 프로그램에서부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취·창업 교육,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가족상담 및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축제와 사회봉사단 운영 등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긍정적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민관이 유사하다(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a; 강복정, 2012).

지원사업의 관점과 이론적 토대는 개입의 방향과 구체적인 활동 및 서비스 뿐 아니라 그것들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길잡이로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목표달성을 돕는 중요한 요소이다(김상곤 외, 2012).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관점에 대한 논의는 임파워먼트 접근을 제안한 문헌연구(윤혜미, 2009), 지원센터의 종사자 관점에서 역량강화 접근을 다룬 질적연구(신영화, 2010), 문화상대주의와 강점관점에 기반을 둔 지원사업의 보고서(현경자, 2007) 등에서 발견된다. 아울러 이혜경(2009)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을 가부장주의와 성인지 측면 그리고 문화동화와 문화양립 측면에서 유형화하여 정부의 지원사업들에서 동화주의 성향이 완화되고 성인지적이며 문화양립적인 측면이 보완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 문헌들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관점으로 임파워먼트, 역량강화 등으로 대변되는 강점관점과 젠더인지 및 문화양립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본 연구에 자료를 제공해 준 다문화가족지원사업도 이들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지원사업의 이용효과를 논하기 앞서 그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문화상대주의와 강점관점에 기반 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개요<sup>5)</sup>

문화상대주의와 강점관점에 기반을 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중앙공동모금회가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3년씩 지원한 테마 기획사업이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사업의 기획 및 운영을 도왔다는 점에서 타 사업과 구별된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세부 목표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역량강화, 다문화가족의 화합 및 지역사회 통합을 설정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사고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각 문화권의 사고체계가 나름대로 논리성을 갖추고 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문화상대주의 관점(Shweder, 1991)에 기반한다.<sup>6)</sup> 따라서 지원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문화의 다양성과 동등성을 전제하며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간의 상호문화 존중과 이해를 적극 도모하였다.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다문화적 상황에서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마찰이나 역기능적 대응은 상대 문화권의 의미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고 문화교육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Bochner, 1986). 이 사업은 의사소통의 문제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언어·문화교육과 가족들 간의 소통을 돕는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이 정착시기에 겪는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지원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강점관점의 실천에 있다. 즉, 사람들에게 내재된 강점과 잠재력을 지지하고 활용하여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였다(Miley et al., 2001). 강점관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은 문제가 있는, 혹은 일방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개입대상이 아니며 자신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삶을 주도하는 능동적 존재이자 변화의 주체다. 따라서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강점을 찾고 개발하여 강화시키는 실천(Saleebey, 2013)을 지향하였고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지지적인 사회환경과 지원체계 구축에 힘을 쏟았다. 또 긍정심리의 활성화가 개인의 심리사회적 자원개발과 건강에 기여함을 고려하여(Seligman, 2002) 지원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나 그 가족이 문제나 결점에 얽매이기 보다는 보람, 희망, 재미, 만족감, 성취감 등 긍정심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일례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두 문화와 언어에 능통한 강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역할모델을 제시하여 희망을 키울 수 있게 하였고, 한국어 교육에서도 인생곡선 그리기와 같은 시간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며 5년 또는 10년 후의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고 목표를 세우도록 격려했다.

### (2)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이용의 단기성과 - 여성결혼이민자의 긍정적 변화

사회복지지원사업의 성과는 시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지고 단기성과는 지원서비스 이

5) 본 연구는 이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이 중간평가를 위해 2008년 하반기에 제공해 준 자료를 분석하였고, 사업개요는 그 사업의 성과보고서(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a)를 참고하였다.

6) 문화상대주의를 지지하는 학자들도 인간사회와 개인의 심리 속에 보편적인 특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또 다수와 기득권층의 지지로 전승되어 오는 문화는 사회적 소수자에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 예로 성불평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지원사업의 경우 인권실현과 양성평등 같은 현대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사업에 반영하고 존중하여 그러한 문화상대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용과정의 활동이나 결과로 산출되는 긍정적 변화를 뜻하며, 구체적으로 행동, 지식, 기술, 태도, 관계 등의 수준 변화를 포함한다(김상곤 외, 2012).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단기성과로 기대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긍정적 변화는 언어 및 문화이해, 생활지식 습득, 역량강화 등 개인과 가족관계 및 지역사회 교류 차원에서 당사자가 느끼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포함한다. 위에서 논의된 문화상대주의와 강점관점에 기반 한 지원사업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그와 같은 긍정적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업의 이용효과를 총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16개의 긍정적 변화 문항들에 대한 응답의 평균 범위가 중간평가 시에는 3.31(SD=1.02)에서 3.78(SD=.87)로 대부분 3점 '약간 그렇다' 보다는 4점 '그렇다'에 가까웠고 3년 사업의 종료 시점에서는 그 평균의 범위가 3.58(SD=.99)에서 3.98(SD=.84)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a, 2009b).<sup>7)</sup> 이 두 시점 모두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이 긍정적 변화를 가장 많이 느낀 문항들은 친구가 많아짐, 모국인과의 교류 확대, 자신의 발전 인식, 가족관계가 좋아짐, 한국생활 적응력 향상, 자신감이 생김 등으로 유사하였다. 이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여성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를 추구해 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은 이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펼치는 것, 실천가와 대등한 관계에서 지역축제나 프로그램을 스스로 준비하고, 원어민 강사나 상근활동가로 교육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것 등을 의미 있는 변화로 꼽았다(신영화, 2010)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제공된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들에서도 이들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대안적 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미술활동 집단프로그램(권복순, 2010; 최정숙·오지영, 2011)이나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김연수, 2010)에서 참여자들의 문제해결이나 대처 능력, 분노조절 등의 기술향상이 나타났다. 또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결혼이민여성들은 속이 시원함, 남과 비슷해 위안을 얻음, 한국인 남편과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가족과의 대화 등을 성과로 언급하였고, 자신을 재발견하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 결심을 하게 된 점을 긍정적 변화로 보고하였다(이선희·김은재, 2012).

### 3) 지원사업 이용, 긍정적 변화, 결혼의 안녕 및 희망의 관계

#### (1)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원사업 이용과 긍정적 변화와의 관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이용은 이상과 같이 단기성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언어·문화교육 등 교육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결혼이민여성의 역량강화 뿐 아니라 가족의 화합, 경제적 자립, 자녀양육, 지역사회 참여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므로 지원사업을 얼마나 어떻게 이용하는가가 중요하다. 즉, 이 여성들이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용하는 것 뿐 아니라 자주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

7) 이 두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이 어느 정도 중복되는지 알 수 없어 긍정적 변화의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장기로 지원사업을 이용한 여성들의 비율이 3년 사업 종료 시점에서 더 높을 수 있고 이것이 사업평가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강화하는데 필요하다. 실제로 이 연구에 자료를 제공해 준 전국단위 지원사업의 성과보고서(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a)를 보면 서비스 이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결혼이민여성들이 1년 미만인 자들보다 목표 달성을 보고한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아<sup>8)</sup> 지원사업의 적극적 이용이 이 여성들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함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례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한국어 교육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주 이루어져야 긍정적인 결과를 담보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를 포함한 한국인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이주여성이 단순히 한국말을 잘하고 읽기와 쓰기를 익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문화의 의미체계를 이해해야 가능하다. 그와 같은 소통은 문화이해교육, 문화체험, 한국생활적응훈련 등을 통해 이들이 다양한 상황에 접해보고 적절한 행동과 생활기술을 요구하는 상황들과 관계들의 의미를 습득할 때 가능하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재미, 보람, 성취감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그런 종류의 긍정적 감정은 인지기능을 촉진하여 학습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Fredrickson, 2000). 긍정적 감정이 정신건강을 돕는 효과를 보면 그런 감정을 크게 느낄 때 보다 작게라도 자주 느낄 때 극대화되므로(Diener and Larsen, 1993) 이 여성들이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신영화, 2010).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장기적으로 자주 다양하게 이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자기 자신과 가족관계 및 지역사회 교류 차원에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 (2) 지원사업 이용에 따른 긍정적 변화와 결혼의 안녕 및 희망의 관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촉진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들은 이 여성들의 희망을 키우고 결혼의 안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와 자료의 일부를 공유하는 선행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원서비스 이용기간은 결혼만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여(현경자, 2012a) 그런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결혼의 안녕은 부부 또는 기혼자가 결혼생활에서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고 결혼을 유지할 의사가 높아 결혼이 안정적인 상태를 뜻하며(Crohan and Veroff, 1989)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부부갈등의 수준도 결혼의 안녕을 반영하는 지표로 간주한다(예: Day and Acock, 2013).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은 결혼생활을 영위하며 경제적 곤란, 가부장적 가족문화로 인한 가족갈등, 언어와 문화 장벽에 따른 부부갈등, 자녀양육 문제, 시가족의 무시와 홀대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강유진, 1999; 홍달아기·채옥희, 2006; 정혜영·김진우, 2009; 김순규·이주재, 2010). 또 이들은 맥락과 상황에 맞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가족 내 역할분담, 부부의 친밀감 표현방식, 시부모의 간섭과 통제, 친정지원이나 시부모 부양 등으로 배우자나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한다(현경자, 2012b 재인용). 다문화가정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부부갈등이나 가족문제는

8) 이 보고서를 보면 출산, 가족반대, 취업 등으로 중도에 탈락하는 여성들의 서비스 이용기간이 평균 6.78개월(SD=3.23)로 짧다. 또 주요 지원서비스 6개의 수혜경험과 수혜 서비스 총 수를 분석한 연구(김이선 외, 2012)를 보면 서비스 수혜율이 높은 20대 이하에서 수혜서비스 개수가 평균 2.4개로 낮아 이 여성들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결과들도 지원사업의 이용수준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결혼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의 대부분은 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이용하여 한국어를 배우고 자신이 처한 상황들과 관계들의 문화적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때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다.

지원사업의 이용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력과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된다면, 또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과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고 갈등을 조율할 수 있게 된다면, 다문화적인 결혼생활에서 야기되는 부부갈등과 어려움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가족의 지지를 느끼고 얻는 것이 쉬워져(유가효 외, 2008)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고 결혼상태가 보다 안정될 수 있다. 게다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얻은 생활지식과 자신감은 이주여성이 한국인 가족들과 보다 평등한 관계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고, 그것으로 축진되는 평등한 부부관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을 높일 수 있다(서해정·김형모, 2009). 결혼이민여성이 지원사업의 이용으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면 배우자나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에 보다 적절히 대처하여 가족관계가 좋아지고(신영화, 2010), 언어문제가 해소되면 한국인 남편과의 갈등도 줄어든다(최지영, 2013). 따라서 지원사업의 이용에 따른 긍정적 변화들은 이 여성들의 부부갈등인식을 낮추고 결혼의 안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게다가 부부갈등의 감소는 부부의 상호작용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결혼의 안녕을 돕고(Fincham and Beach, 1999), 결혼생활에서의 안녕감은 결혼이민 여성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

Snyder(1994)의 희망이론에 따르면 희망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목표지향적 사고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희망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나 그 경로를 찾아내는 경로사고(pathway thinking) 능력과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자신을 동기화하는 주도사고(agency thinking) 능력을 개인이 모두 느낄 때 생성될 수 있다. 희망을 구성하는 이 두 가지 인지적 요소, 즉 목표달성 방법(ways)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will)는 긴밀히 교류하며 자신감, 열정 등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야기하고, 이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대안을 찾고 만들어내려는 당사자의 동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 희망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Snyder, 2000), 높은 수준의 희망은 학업성취, 신체건강,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돕고 긍정적 정서와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한다(Rand and Cheavens, 2009). 또 여성결혼이민자의 희망은 적극적인 문제해결, 사회적 지원추구 등을 포함하는 대처방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바 있다(박지영·이창식, 2013). 지원사업의 이용으로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한국어와 문화적응력이 향상된다면, 또 자신의 강점을 알게 되고 발전을 느낀다면, 스스로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 희망과 같은 심리적 자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지원사업의 이용으로 가족관계가 향상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해져 이 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자신감을 느낀다면, 그런 희망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토대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적극적 이용은 단기성으로 볼 수 있는 결혼이민 여성의 긍정적 변화와 연결되고, 이어서 그런 변화는 부부갈등 감소와 결혼의 안녕 및 희망에 기여하리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문헌을 보면 지원사업의 이용으로 부부갈등이 오히려 발생

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결혼이민여성이 다른 다문화부부들의 결혼생활과 자신의 결혼생활을 비교 하게 되면서 또는 역량이 강화되어 한국인 남편과의 생활력 격차가 커지면서 부부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신영화, 2010; 이선혜·김은재, 2012). 또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통제변인 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국내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지원서비스 이용욕구와 실제 서비스 이용률이 높으며(김기현, 2008; 서지은·최현미, 2012) 한국어 능력은 정보에 대한 접근 성을 높여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서비스 이용과 정적으로 연관된다(서지은·최현미, 2012 재 인용). 한국인 남편과 시가족의 이해와 지원 여부도 이들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이윤정, 2010) 지원서비스의 이용수준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도유록, 2012). 특히 결혼이민여성들이 느끼는 긍정적 변화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얻은 결과라기 보다는 국내거주기간이 길어지고 한국어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일 수도 있어 그 가능성 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이제까지 지원사업의 이용효과들은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나 질적 연구를 통해 주로 확인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들이 지원사업 전반의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총체적으로 알아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 3. 연구개요와 가설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이용이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긍정적 변화와 부부갈등인식, 결혼의 안녕 및 희망과 연관되는 구조를 밝히기 위해 시도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지원서비스 이용기 간에 결혼만족과 정적으로 연관됨을 보여주는데 그쳐(현경자, 2012a) 이 연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원사업의 이용이 어떤 과정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희망과 부부갈등인식 감소 및 결혼의 안녕 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 국사회 정착과 결혼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이들이 한국인 가족들과 서로 이해하며 화합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 이 사업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역주민들과 교류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봉사 등에 참여하며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감을 키우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연 구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이용으로 기대되는 여성결혼이민자 개인과 가족관계 및 지역사회 교류 차 원에서의 긍정적 변화가 지원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자주 다양하게 이용하는 가운데 촉진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았고, 그런 변화는 이 여성들의 희망을 키우며 부부갈등인식 감소와 결혼의 안녕을 도울 것으 로 가정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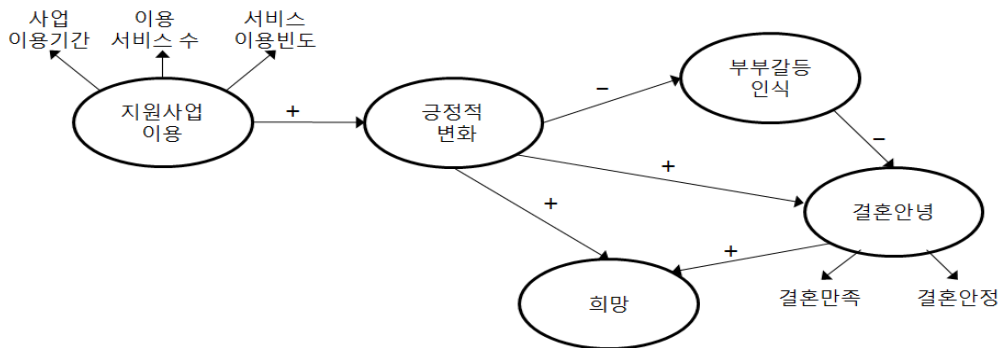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이용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각하는 긍정적 변화들과 정적 으로 연관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이용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변화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목표 달성과 관 련된 경로사고와 주도사고 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희망과 정적으로 연관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이용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변화들은 여성결혼이민자가 배우자를 이해하고 그와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부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부부갈등인

식과는 부적으로, 그리고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으로 대변되는 결혼의 안녕과는 정적으로 연관될 것이다.

넷째, 부부갈등의 감소로 촉진될 수 있는 부부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결혼의 안녕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지원사업의 이용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변화들은 부부갈등을 낮추는 간접경로로 결혼의 안녕에 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끝으로 결혼의 안녕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의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키우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희망과 정적으로 연관될 것이다.<sup>9)</sup> 따라서 지원사업의 이용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변화들은 부부갈등 감소와 결혼의 안녕을 통한 이중의 간접경로와 결혼안녕을 통한 간접경로로 희망에 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상의 가설들은 지원사업 이용이 긍정적 변화를 통해서만 부부갈등과 결혼의 안녕 및 희망에 연관되는 완전매개를 전제하며 이를 도형화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지원사업 이용이 긍정적 변화를 통해 부부갈등, 결혼의 안녕 및 희망에 기여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모형 (+는 정적관계, -는 부적관계임)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지원사업의 이용효과가 그 사업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변화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 그런 연구는 드물다.<sup>10)</sup>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이용효과가 위와 같이 긍정적 변화를 통해서 완전매개되는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연구의 내적타당도 확보를 위해 고려된 통제변인들 중 이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간명성 원칙에 입각하여 (이순목, 1990; Kline, 2010) 국내거주기간과 한국어 능력을 통제모형에 포함시켜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또 이 연구는 지원사업 이용이 부부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완전매개를 전제한 연구모형의 타당성 검정을 위해 지원사업 이용이 부부갈등인식, 결혼의 안녕 및 희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이 포함된 모형들을 대안모형으로 검토하였다.

9) 결혼의 안녕과 기혼자의 일반적 행복감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종단적으로는 결혼의 질이 개인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Ruvolo, 1998) 이 가설의 방향이 적절함을 유추할 수 있다.  
 10) 일례로 자활지원사업의 경우, 참여자의 태도와 의식의 변화나 사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로 지원사업의 성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보다 일반적이고 그런 변화가 중장기적인 목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 본 연구는 드물다(정원오·김진구, 2005 참조).

## 4. 연구방법

### 1) 표집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테마 기획사업인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이용해 온 여성결혼이민자이다. 2008년도에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전국의 각 시·도에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36개 수행기관들이 자료수집에 참여하였고, 조사대상자 선정에는 편의표집과 비확률 할당 표집방법이 사용되었다.<sup>11)</sup> 사업수행기관별로 실무담당자가 기관에 할당된 여성결혼이민자 20명을 표집하였고 이 때 이 여성들의 국적별 분포비율이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국적별 분포와 일관되게 하였다. 자료수집은 이 실무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자기기입식 조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5000원 이하의 기념품이 증정되었다. 조사기간은 2008년 7월부터 9월 까지였다. 이 연구의 자료는 수집된 설문지들 중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558부의 결혼이민여성 설문지들에 기반하고 있다.

### 2) 측정

자료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가 작성되었고, 설문지는 전문번역가와 이중언어 능통자인 이주외국인 활동가들에 의해 6개 국어, 즉,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어로 번역되었다. 설문지 번역 상의 오류와 의미 일치 등의 문제는 문화간 연구에서 강조되는 설문지의 역번역(back translation)을 통해 확인 및 수정되었다. 응답자의 모국어 설문지가 없는 경우(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한국어 독해와 쓰기가 가능한 자들에 한해 한국어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 (1) 지원사업 이용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원사업 이용은 사업이용 기간, 서비스 이용 빈도 및 이용한 서비스의 수로 측정되었다. 첫째, 지원사업 이용기간은 기관의 서비스 이용 횟수와 개월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총 이용기간(개월)을 산출하여 6개월 단위(1. 6개월 미만; 7. 3년 이상)로 재코딩되었다. 서비스 이용 빈도는 복지관/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이용 빈도를 7단계(1. 일주일에 3-4회; 그 이후는 일주일, 한 달, 3-4개월, 6개월, 1년에 각 1-2회; 7. 거의 참여하지 않음)로 나누어 측정된 것이 이용되었고,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역코딩 되었다. 끝으로 이용서비스의 수는 수행기관들에서 실시한 총 15개 영역의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용 여부를 측정하여 응답자가 이용한 프로그램 수를 더하

11) 당시 지원사업에 3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었으나 자료수집은 36개 기관만 완료하였다. 표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9b)의 연구보고서에 있다.

여 산출되었다.

## (2) 지원사업 이용 후 지각된 긍정적 변화

지원사업의 이용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이 지각하는 긍정적 변화는 16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지원사업의 단기성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 변화를 포괄하기 위해 개인, 가족, 지역사회 영역으로 나누어 긍정적 변화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묘사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우선 지원사업이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자립역량강화, 강점 강화 등에 주력하였으므로 개인차원의 변화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잘하게 됨”,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많이 알게 됨”, “취업 및 한국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생김”, “자신의 좋은 점을 알게 되고”, “발전을 느낌” 등이 측정되었다. 가족차원의 긍정적 변화로는 “한국인 남편과 시댁 가족을 잘 이해하게 됨”, “가족 간의 사이가 좋아짐”이 포함되었고, 지역사회차원의 긍정적 변화에는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됨”, “지역주민들과 어울리는 게 더 편안해짐” 등이 포함되었다. 끝으로, 지원서비스 이용으로 촉진될 수 있는 당사자의 긍정적인 심리상태와 행동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됨”, “어려움을 더놓고 이야기하게 됨” 등이 측정되었다. 응답자들은 설문조사 시점에서 복지관/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후에 이상과 같은 다양한 영역들에서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는지를 떠올려보고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정도가 높음을 뜻한다. 긍정적 변화 항목들 간의 내적 일치도, 즉 신뢰도 계수는 .94로 양호했다.<sup>12)</sup>

## (3) 희망

희망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시각, 특히 목표달성과 관련된 경로사고와 주도사고를 알아볼 수 있는 희망상태 척도(Snyder et al., 1991)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빠져나올 방법을 많이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열정적으로 내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등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척도인 원척도를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전환한 문항들이 사용되었고, 척도점수는 응답의 평균이 이용되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7로 나타났다.

## (4) 부부갈등인식

부부갈등인식은 결혼생활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부부가 경험하는 의견의 불일치 정도에 의해 측정되었다(현경자, 2005). 구체적으로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예: 금전관리), 생활방식(예: 가사일 분담), 부부관계(예: 애정, 성문제), 개인적 특성(예: 가치관, 역할기대), 가족문제(예: 친인척 대하는 법, 자녀양육방식) 등과 관련된 19개의 갈등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한 배우자와의 의견일치나 충돌 정도를 생각해보고 4점 척도(1. 거의 틀림; 4. 거의 같음)로 평정하였다. 척도 점수는 응답의 평균이 이용되었고, 자료분석 시 역코딩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음을 뜻한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90이었다.

12) 이 연구에 보고된 신뢰도는 모두 문항들 간의 내적일치도를 보여주는 Cronbach  $\alpha$  값이다.

### (5) 결혼의 안녕

결혼의 안녕은 결혼만족과 결혼의 안정으로 측정되었다(Ruvolo, 1998). '결혼만족'은 결혼만족의 주관성을 고려하여 가치중립적인 문항 3개(결혼생활, 배우자,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로 구성된 Kansas 결혼만족척도(Schumm et al., 1986)와 부모로서 느끼는 만족문항으로 측정되었다(정현숙, 1997). 척도점수는 7점 척도(1. 전적으로 불만족; 7. 전적으로 만족)로 측정된 응답의 평균이 이용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음을 뜻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9로 양호했다. '결혼의 안정'은 부부 간의 행동심리에 결혼해체 경향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결혼불안정 척도(Booth et al., 1983)의 5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 3년간 결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배우자와 이혼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등이 측정되었다. 2점 척도인 이 척도의 점수는 응답의 총점으로 산출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이 안정적이 되도록 역코딩 되었다(0=예, 1=아니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8 이었다.

### (6) 통제변인

국내거주기간은 응답자의 입국시기를 토대로 산출되었고, 거주기간의 폭과 편차가 커 1년 단위로 재코딩되었으며 거주기간이 4년을 초과한 자들이 통합되었다. 한국어 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개 영역에서 응답자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 한국어 구사력의 평균이 이용되었다.

## 3) 분석방법

응답자들의 특성과 측정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상관 및 신뢰도 분석에 SPSS가 이용되었고, 연구모형은 AMOS통계 프로그램 21로 검토되었다. 본 연구의 모형 검정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에 고려된 측정변수들 중 다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들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문항결합(item parceling)을 하거나 검증된 척도의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관찰변인으로 투입되었다. 일례로 긍정적 변화와 부부갈등인식은 영역별로 측정이 되었으나 이에 따라 문항결합을 하지 않고 주성분 분석결과로 문항결합을 하였다.<sup>13)</sup> 모수의 추정은 결측치가 있어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사용되었다.<sup>14)</sup>

13) Kishton과 Widaman(1994)에 따르면 다차원 척도의 영역별 문항결합이 내적일치도를 높이고 잠재변인의 다면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모수추정치가 안정적이지 못해 수용불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긍정적 변화 문항들을 영역별, 즉 개인, 가족, 지역사회 영역별로 나누어 결합한 방식과 주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영역별 문항들이 혼합되어 있는 하위요인별로 문항결합을 한 방식을 이용하여 각각 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후자의 방식에서 모형적합도가 더 양호하게 나타났다.

14)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작위로 발생하거나 한 변수의 결측여부가 다른 변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모두에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 보다 미지수 측정이 정확하다(Arbuckle, 1996).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정은 연구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원사업 이용이 부부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가 추가된 대안모형1과 부부갈등, 결혼안녕 및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들이 모두 포함된 부분매개모형인 대안모형2가 함께 검토되었다. 이어서 이러한 기본모형들에 국내거주기간과 한국어 능력이 포함된 통제모형들이 검토되었다. 기본모형의 경우, 측정모형과 구조모형들의 적합도 검정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방식은 자료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가 떨어질 때 설정 오류의 근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여 권장된다(Anderson and Gerbing, 1988). 통제모형의 경우, 국내거주기간과 한국어 능력이 하나의 관찰변수로 측정되어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한 번에 분석하는 방식이 이용되었다. 끝으로 구조모형들의 평가를 위해 카이자승 차이검정 결과와 적합도 차이가 검토되었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로는  $\chi^2$ 값보다 표본 크기에 덜 민감한 비교부합치(CFI),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비표준부합치(TLI)와 개략화오차(RMSEA)가 검토되었다(홍세희, 2000). 이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 값이 .95 이상, 신뢰구간 설정이 가능한 RMSEA 값이 .06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간주하였고(Hu and Bentler, 1999) CFI와 TLI 값 .90 이상을 좋은 모형으로 간주하는 해석 기준도 참고하였다(홍세희, 2000).

## 5. 분석결과

### 1) 조사참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있다. 이 여성들의 국적분포는 표집의도 대로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이주여성들의 국적별 분포를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이 전체의 4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중국이 21%, 필리핀이 15.1%, 일본이 6.6% 순으로 이 네 나라 출신들이 전체의 약 84%를 차지했다. 결혼이민여성 응답자들의 국내 거주지역은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가 약 62.2%로 농어촌 또는 도농복합지역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8.8세(SD=7.3)였고, 연령대는 20대가 53.4%로 가장 많았으며 20~30대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결혼상태는 초혼이 약 89%로 가장 많았고, 결혼기간은 평균 45.4개월(SD=43.1)로 3년 9개월 정도였다. 이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평균 10.9년(SD=3.2)으로 고등학교 중퇴 수준에 해당되었고, 가족생애주기는 대부분(79.6%)이 무자녀나 임신중(31%) 또는 만 2세 이하 영아기(23.3%)와 만 6세 이하 유아기(25.3%)에 속했다. 이들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200만원이 24%로 가장 많았는데 무응답의 비율이 높아 실제 경제상태를 추정하기 어려웠다.<sup>15)</sup> 국내거주기간은 평균 46.4개월(SD=42.9)로 결혼기간과 거

Enders와 Bandalos(2001)도 결측치가 포함된 모의자료로 FIML이 정확한 부합치를 산출함을 확인한 바 있다.

15)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족의 월수입을 잘 몰라 무응답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제외하면 100만원~200만원 이하 가구의 비율이 약 53%로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많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의 동일하여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결혼과 동시에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혼이민여성 응답자들의 특성은 2009년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김승권 외, 2010)에 참여했던 결혼이민여성들의 특성과 거주지역, 연령대, 교육수준 등에서 유사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표본이 편의표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특성에 비교적 부합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현경자, 2012a).

〈표 1〉 조사참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558)

변수		N	%	변수		N	%
출신국	베트남	231	41.4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1	7.4
	중국	117	21.0		중학교 중퇴/졸업	128	22.9
	필리핀	84	15.1		고등학교 중퇴/졸업	198	35.5
	일본	37	6.6		전문대 중퇴/졸업	82	14.7
	태국	28	5.0		대학교 중퇴/졸업	56	10.0
	몽골	15	2.7		대학원 이상	15	2.7
	기타	29	5.2		기타	15	2.7
	무응답	17	3.0		무응답	23	4.1
					교육연수: M=10.9년/SD=3.2		
거주지역	대도시	199	35.7	가족활주기	아이 없음/ 임신 중	173	31.0
	중/소도시	148	26.5		영아기(만2세 이하)	130	23.3
	농/어/산촌	108	19.4		유아기(만3-6세)	141	25.3
	도/농 복합지역	62	11.1		아동기 이상	78	14
	기타	7	1.3		기타	13	2.3
	무응답	34	6.1		무응답	23	4.1
	연령	10대	10		1.8	가족월수입	100만원 미만
20대		298	53.4	100-200만원 미만	134		24
30대		147	26.3	200-300만원 미만	83		14.9
40대 이상		54	9.7	300만원 이상	64		11.5
무응답		49	8.8	무응답	246		44
연령: M=28.8세/SD=7.3 (최소/최대: 18세/71세)				월수입 M=170만원/SD=200만원			
결혼상태	초혼	496	88.9	한국거주기간	1년 미만	65	11.6
	재혼	41	7.3		1년 이상 - 2년 미만	107	19.2
	동거	5	0.9		2년 이상 - 3년 미만	97	17.4
	별거	4	0.7		3년 이상 - 4년 미만	73	13.1
	기타	4	0.7		4년 이상	179	32.1
	무응답	8	1.4		무응답	37	6.6
	결혼기간: M=45.4개월/SD=43.1 (최소/최대: 2개월/389개월)				거주기간: M=46.4개월/SD=42.9 (최소/최대: 2개월/336개월)		



## 2) 지원사업 이용, 긍정적 변화, 부부갈등, 결혼안녕 및 희망의 관계구조 검증

연구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 결과와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는 <표 2>에 있다. 지원사업의 이용수준 측정에 포함된 변수들, 즉 지원사업 이용기간, 서비스 이용 빈도 및 이용서비스 수는 예측대로 긍정적 변화와 정적상관을 보였고(rs=.12~.28, ps<.01), 긍정적 변화는 희망, 결혼만족, 결혼안정(rs=.30, .31, 10; ps<.001, .05 각각)과 정적으로 그리고 부부갈등인식(r=-.27, p<.001)과는 부적으로 연관되었다. 즉, 주요변수들 간의 관계가 대부분 기대했던 바와 일치하였다.

<표 2> 측정에 고려된 주요변수들과 통제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 결과와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 사업 이용기간										
2. 서비스 이용빈도	.10*									
3. 이용서비스 수	.18***	.10*								
4. 긍정적 변화	.13**	.12**	.28***							
5. 희망	.10*	.18***	.09*	.30***						
6. 부부갈등인식	.00	-.02	-.04	-.27***	-.20***					
7. 결혼만족	.04	.04	.11*	.31***	.26***	-.52***				
8. 결혼안정	.02	.00	.01	.10*	.04	-.38***	.45***			
9. 국내거주기간	.41***	.00	-.02	.09+	.01	.16***	-.12**	-.18***		
10. 한국어능력	.18***	.08+	.10*	.36***	.18***	-.09*	.10*	-.03	.30***	
평균 (표준편차)	2.57 (1.62)	5.27 (1.98)	9.58 (5.04)	3.60 (0.62)	3.48 (0.66)	2.19 (0.53)	5.21 (1.20)	4.16 (1.33)	3.21 (1.52)	3.06 (0.72)
왜도	1.065	-1.363	-4.16	-.221	-.189	.560	-.545	-1.549	-.119	.174
첨도	.489	.416	-1.227	1.108	.004	1.004	-.044	1.341	-1.455	.559

+p<.10, \*p<.05, \*\*p<.01, \*\*\*p<.001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앞서 조사자료가 최대우도 추정방식에서 전제하는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에 부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변수들의 왜도, 첨도, 특이사례 여부, 다중공선성 문제 등을 살펴보았으나(Kline, 2010) 우려되는 결과는 없었다. 측정변수들은 <표 2>에서와 같이 모두 왜도 2 이하, 첨도 7 이하로 단일변량의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et al., 1996).

기본 연구모형의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측정모형의  $\chi^2$  값은 102.75(df=44, p<.001)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사례 수에 영향을 덜 받는 적합도들의 값은 CFI=.968, TLI=.944 RMSEA =.049(.037-.061)로 양호하였다. 또 경로계수의 표준오차가 일반적으로 2.5 이상 큰 경우, 오차의 분산이 음수이거나 추정된 요인들의 상관계수가 .90 이상으로 1에 가까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김계수, 2010: 120)

〈표 3〉 기본 연구모형의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 → 측정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지원사업 이용 → 서비스 이용기간	1.00	—	.30
지원사업 이용 → 이용 서비스 수	5.62***	1.58	.54
지원사업 이용 → 서비스 이용 빈도	.99**	.35	.25
긍정적 변화 → 긍정적 변화1	1.00	—	.91
긍정적 변화 → 긍정적 변화2	1.04***	.07	.86
부부갈등인식 → 부부갈등인식1	1.00	—	.89
부부갈등인식 → 부부갈등인식2	.77***	.05	.61
부부갈등인식 → 부부갈등인식3	.92***	.05	.81
결혼의 안녕 → 결혼안정	1.00	—	.53
결혼의 안녕 → 결혼만족	1.47***	.17	.85
희망 → 희망1	1.00	—	.95
희망 → 희망2	.62***	.09	.60

\* $p < .05$ , \*\* $p < .01$ , \*\*\* $p < .001$ 

이 연구에 고려된 구조모형들의 적합도 검정결과는 〈표 4〉에 기본모형과 통제모형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어 있다. 우선 기본모형들을 살펴보면, 지원사업의 이용이 긍정적 변화를 통해 부부갈등인식과 결혼의 안녕 및 희망에 연관되는 연구모형, 즉 완전매개모형과 지원사업 이용이 부부갈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추가된 대안모형 1 그리고 결혼의 안녕과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들까지 모두 포함된 부분매개를 가정한 대안모형 2의  $\chi^2$  값이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CFI=.97과 TLI=.95에 근접하였고 RMSEA 값도 .05 이하로 양호하였다. 즉, 모형 적합도 면에서는 이 세 모형들의 차이가 미미했다. 그러나  $\chi^2$  차이검정 결과,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1과 2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Delta\chi^2(1)=2.96$ ,  $\Delta\chi^2(3)=4.21$ ,  $ps > .05$  각각), 대안모형들보다 간명한 연구모형이 자료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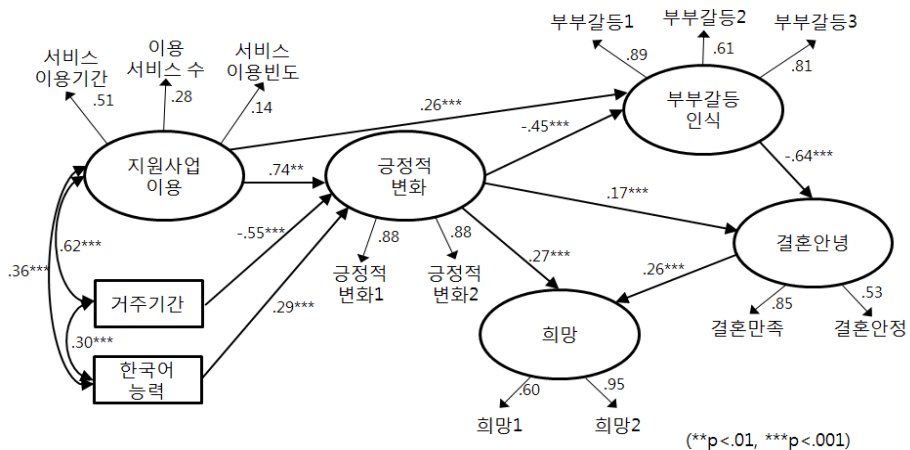
〈표 4〉 지원사업 이용, 긍정적 변화, 부부갈등, 결혼안녕 및 희망의 관계모형 적합도 검정결과

연구모형	$\chi^2$	df	CMIN/df	CFI	TLI	RMSEA (신뢰구간)
<b>기본모형</b>						
연구모형	107.07***	48	2.23	.968	.948	.047(.035-.059)
대안모형 1	104.11***	47	2.22	.969	.949	.047(.035-.059)
대안모형 2	102.86***	45	2.29	.969	.946	.048(.036-.060)
<b>통제된 모형</b>						
연구모형	214.95***	68	3.16	.930	.891	.062(.053-.072)
대안모형 1	203.31***	67	3.03	.935	.898	.060(.051-.070)
대안모형 2	200.84***	65	3.09	.935	.895	.061(.052-.071)

\*\*\* $p < .001$

국내거주기간과 한국어능력이 통제된 모형들에서도 <표 4>에 나타나듯이  $\chi^2$  값이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반면에 이들의 적합도(CFI, TLI) 값은 기본모형들보다 낮았지만 수용 가능하였다. 통제된 연구모형의 TLI 값 .891을 제외한 나머지 적합도들은 .90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을 보였고 RMSEA 값도 기준치(.06)에 근접하였다. 이 중 지원사업 이용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가 추가된 대안모형 1의 적합도가 CFI=.935, TLI=.898, RMSEA=.06으로 가장 양호했다.  $\chi^2$  차이검정 결과도 연구모형과 이 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Delta\chi^2(1)=11.64, p < .01$ , 반면에 이 모형과 대안모형 2 간에는  $\chi^2$  차이가 미미했다,  $\Delta\chi^2(2)=2.47, p > .10$ . 결론적으로 통제변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대안모형 1이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안모형 1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림 2>에 있다. 여기에 제시된 측정변인들과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는 지원사업 이용과 서비스 이용 빈도 간의 관계( $p=.016$ )를 제외하면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고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이다. 이 그림에 나타나듯이, 지원사업 이용과 국내거주기간 및 한국어 능력 간의 상관들( $r_s=.30 \sim .62, p_s < .001$ )과 이들이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했을 때 연구모형에 고려된 변인들의 경로가 모두 예측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유의했다. 즉, 지원사업 이용은 결혼이민여성의 긍정적 변화와 연관되었고( $\beta=.74, p < .01$ ), 그런 변화는 당사자의 부부갈등인식을 낮추고 결혼의 안녕을 돕는 한편 희망에 기여하였다( $\beta_s=-.45, .17, .27, p_s < .001$  각각). 또 부부갈등인식은 결혼의 안녕과 부적으로 연관되었다( $\beta=-.64, p < .001$ ). 따라서 긍정적 변화는 결혼의 안녕을 저해하는 부부갈등을 낮추어 결혼안녕을 강화하고, 이어 결혼안녕은 희망을 도와( $\beta=.26, p < .001$ ) 이러한 간접 경로로 희망과 연관되었다. 이 결과들은 연구가설들을 지지하였지만 선행연구들이 시사한 대로 지원사업의 이용은 직접 부부갈등인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6, p < .001$ ). 즉,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 사이에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높게 보고되었다. 한편 통제변인으로 포함된 국내거주기간은 긍정적 변화와 부적으로 연관되었고( $\beta=-.55, p < .001$ ), 한국어 능력은 그런 변화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beta_s=.29, p < .001$ ). 다시 말해 응답자들의 국내거주기간이 짧고 한국어 구사력이 좋을수록 긍정적 변화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지원사업 이용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포함하는 통제된 대안모형 1의 분석결과

기본 연구모형과 통제된 연구모형 및 대안모형들의 모수추정치들은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 5>에 있다. 이들을 비교해 본 결과, 첫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 간의 관계들이 통제모형들에서도 모두 예측과 일관되게 유의했다. 둘째, 통제된 연구모형에서 국내거주기간과 한국어 능력이 긍정적 변화에 미친 효과가 통제되었을 때 지원사업 이용이 긍정적 변화에 미친 직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b) 크기가 기본모형의 값 .66에서 .23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지원사업 이용이 부부갈등과 정적으로 연관됨을 보여준 대안모형 1에서 다시 .51로 많이 회복되었다. 또 이 대안모형 1에서 긍정적 변화가 부부갈등인식을 낮추는 직접효과의 크기도 연구모형의 값 -.29에서 -.42로 오히려 커졌다. 이 결과들은 지원사업 이용, 긍정적 변화, 국내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및 부부갈등인식 변인들 간 연관성이 모형 검정 과정에서 적절히 통제됨에 따라 은폐될 수 있었던 효과가 드러난 것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 통계적 통제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특히 지원사업 이용의 관찰변인인 이용기간, 이용서비스의 수, 이용빈도와 부부갈등인식 간의 관측된 상관들이 <표 2>를 보면 -.04~.00으로 거의 전무하였으나, 지원사업 이용이 부부갈등인식에 미친 직접효과( $\beta=.26$ )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억제효과를 추정할 수 있었다.<sup>16)</sup> 끝으로 대안모형 2에서 확인되듯이 지원사업 이용이 결혼의 안녕 및 희망에 미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연구모형과 통제된 연구모형 및 대안모형들의 모수추정치

모수	모수추정치 <sup>a</sup>		연구모형		통제된 연구모형 및 대안모형							
			완전매개		완전매개		대안모형 1			대안모형 2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지원사업 이용 → 긍정적 변화	.66**	.19	.54	.23*	.09	.42	.51**	.19	.74	.49**	.18	.72
지원사업 이용 → 부부갈등	-	-	-	-	-	-	.17***	.05	.26	.16***	.05	.26
지원사업 이용 → 결혼안녕	-	-	-	-	-	-	-	-	-	-.03	.06	-.04
지원사업 이용 → 희망	-	-	-	-	-	-	-	-	-	.09	.06	.11
긍정적 변화 → 부부갈등	-.29***	.05	-.32	-.29***	.05	-.32	-.42***	.06	-.45	-.41***	.06	-.44
긍정적 변화 → 결혼안녕	.22***	.06	.18	.22***	.06	.18	.22***	.06	.17	.25**	.08	.20
긍정적 변화 → 희망	.33***	.06	.27	.33***	.06	.27	.34***	.06	.27	.26**	.08	.20
부부갈등 → 결혼안녕	-.84***	.11	-.63	-.85***	.11	-.63	-.85***	.11	-.64	-.85***	.11	-.63
결혼안녕 → 희망	.26***	.06	.26	.26***	.06	.26	.26***	.06	.26	.28***	.06	.28
국내거주기간 → 긍정적 변화				-.13***	.04	-.35	-.20***	.06	-.57	-.20***	.06	-.54
한국어 능력 → 긍정적 변화				.29***	.04	.37	.23***	.06	.29	.22***	.06	.28

주: <sup>a</sup>b는 비표준화된 경로계수이고  $\beta$ 는 표준화된 계수임; \* $p<.05$ , \*\* $p<.01$ , \*\*\* $p<.001$

지원사업 이용이 연구변인들에 미친 효과를 직접 및 간접효과와 총효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16) 일반적으로 예측변수의 베타 가중치의 절대값이 그 변수와 준거변수 간의 이변량 상관보다 크거나 두 값의 부호가 다를 때 억제효과(suppression)가 있다고 보며, 이는 다른 예측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추정된 이들의 관계가 이례적(surprise)임을 의미한다(Kline, 2010).

〈표 6〉에 있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정은 Sobel의 공식을 참고하였고, 이들은 Z 통계량이 제시된 〈표 6〉에서와 같이 모두 유의했다.<sup>17)</sup> 이 표를 보면 지원사업 이용이 긍정적 변화를 통한 경로로 내생변인들에 미친 간접효과들과 부부갈등에 미친 정적인 직접효과와 이를 통해 결혼안녕과 희망에 미친 부적인 간접효과들이 상반되어 일부 상쇄되지만 연구변인들의 총효과는 모두 연구가설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표 6〉 지원사업 이용이 매개 및 종속 변수들에 미친 효과분해와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정 결과

외생변수	내생변수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							
	긍정적 변화		부부갈등인식		결혼안녕		희망	
	효과량	효과량	Z	효과량	Z	효과량	Z	
지원사업 이용								
직접효과	.74**	.26***						
간접효과								
via 긍정적 변화		-.33*	-2.50	.13*	2.12	.20*	2.39	
via 긍정적 변화 & 부부갈등				.21***	6.50	-		
via 긍정적 변화 & 부부갈등 & 결혼안녕						.05*	2.12	
via 긍정적 변화 & 결혼안녕						.03 <sup>+</sup>	1.93	
via 부부갈등				-.17**	-3.12			
via 부부갈등 & 결혼안녕						-.04*	-2.58	
총효과	.74**	-.07		.18		.24		

주: 표에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효과와 Z검정 통계량임; +p <.10, \*p <.05, \*\*p <.01, \*\*\*p <.001

끝으로 연구모형의 통제변인 설정에서 간명성의 원칙에 따라 제외되었던 가족지지와 이용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대안모형 1에 각각 포함시켜 모형의 적합도와 모수추정치들의 유의도에 차이가 나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족지지는 지원사업 이용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r=.13, p=ns$ ). 가족지지가 긍정적 변화 뿐 아니라 부부갈등인식과 결혼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들이 포함된 모형의  $\chi^2$  값은 257.05(df=90,  $p<.001$ ) 이었고 적합도가 CFI=.934, TLI=.900, RMSEA=.058로 대안모형 1의 그그러한 값들과 차이가 미미하였으며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들과 그것들의 유의 여부에도 차이가 없었다.<sup>18)</sup> 한편 이용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지원사업 이용과 유의미한

17) Sobel의 공식은 정규분포를 가정하므로 정규성을 가정하기 어려운 다중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정에 한계가 있다. 대안으로 그 규정에서 자유로운 부스트랩 방법이 권장되는데 결측치가 있는 자료에 AMOS가 부스트랩을 하지 못하는 것 등의 이유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Kline(2010)이 합리적 대안으로 추천한 Cohen과 Cohen(1983)의 경험법칙에 따르면, 다중매개에 관련된 모든 비표준화 경로 계수가 유의도 수준  $\alpha$ 에서 똑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간접효과도 그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칙에서 보면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간접효과들은 모두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 가족지지 잠재변인은 남편지지와 시댁지지로 측정되었고 지각된 사회적지지 척도(Zimet et al, 1988)의 가족지지 항목에 해당되는 문항이 이용되었다. 가족지지가 긍정적 변화와 부부갈등인식

정적 상관을 보였다( $r=.28, p<.01$ ). 그것이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가 포함된 모형의  $\chi^2$  값은 301.31( $df=107, p<.001$ )이었고 적합도가 CFI=.931, TLI=.902, RMSEA=.057로 대안모형 1 보다 TLI와 RMSEA 값은 다소 낮지만 CFI 값은 오히려 다소 낮아졌고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들과 그것들의 유의 여부에 차이가 없었다.<sup>19)</sup> 따라서 모형의 간명성과 이론적 개연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된 대안모형 1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 6.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과 결혼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이용이 실제로 이 여성들의 긍정적 변화를 도와 부부갈등 감소와 결혼의 안녕 및 희망에 기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예측대로, 지원사업을 장기적으로 자주 다양하게 이용한 결혼이민여성이 긍정적 변화를 높게 보고하였고, 그런 변화는 직접 당사자의 희망을 돕는 한편 부부갈등인식을 낮추고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으로 대변되는 결혼의 안녕에 정적으로 연관되었다. 긍정적 변화는 또한 결혼의 안녕을 저해하는 부부갈등의 감소를 통해 결혼안녕을 강화하고, 이어 결혼안녕은 희망에 기여하여 이러한 간접경로로 희망을 도왔다. 이 경로들을 포함하는 연구모형은 국내거주기간과 한국어 능력의 효과 뿐 아니라 추가분석에서 가족지지와 이용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효과를 통제하고도 예측과 일관되게 지지되었다. 하지만 통제변인들이 분석에 포함되었을 때 지원사업 이용은 기존의 질적연구들(신영화, 2010; 이선희·김은재, 2012)이 시사한 대로 직접 부부갈등인식을 강화하였고, 모형적합도 검증에서 그러한 직접경로가 추가된 대안모형 1이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사업 이용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정적인 직접효과와 긍정적 변화를 통해 이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방향이 상반되어 MacKinnon 외(2000)가 불일치한 매개로 명명한 유형의 억제효과를 유추할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이용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긍정적 변화를 도와 희망을 키우며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촉진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부부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여, 지원사업 이용의 순기능을 강화하면서 부부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적 요소들에 적극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이용이 기획의도 대로 서비스 이용자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긍정적 변화를 직접 돕고, 이어서 그런 단기성과는 직·간접 경로들을 통해 장기적 성과가 될 수 있는 결혼의 안녕 및 희망과 유의하게 연결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

및 결혼의 안녕에 미치는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통제하면 이 변인들과 관련된 경로들, 특히 부부갈등인식이 결혼의 안녕에 미치는 효과가 많이 감소되어 이들을 통하는 간접효과들의 크기에 변화를 초래하는데 그 정도가 간접효과의 유의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었다.

19) 이용서비스 만족 잠재변인은 만족도, 흥미도, 도움도 각각에 대한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어서 대안모형 1에 가족지지와 이용서비스 만족을 모두 포함시킨 모형을 살펴본 결과,  $\chi^2$  값이 385.54( $df=136, p<.001$ )이었고 적합도가 CFI=.924, TLI=.894, RMSEA=.057로 대안모형 1에 비해 TLI와 CFI 값이 낮게 나타나 대안모형 1이 무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토된 지원사업 이용효과 모형은 사회복지지원사업의 단기 및 중장기 성과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하나의 참고모형으로 유용해 보인다. 게다가 이 연구에서 지지된 모형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과 결혼생활을 돕는 지원이 희망과 같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자원을 키우는 데 유용하고, 다문화가족의 안녕을 돕는 일이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안녕을 돕는 일과 상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지식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기획과 방향 정립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원사업 이용과 긍정적 변화가 밀접하게 연관됨을 보여주어 이주여성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데, 지원사업의 이용실태나 관련 연구를 보면 그런 수준을 담보하는데 장애 요인들이 많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가족반대, 출산, 취업 등으로 중도탈락자가 많고(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a), 이주여성들이 언어적 한계로 단회기 프로그램을 좋아하며 초기 정착자에게 3회 이상 지속성을 요하는 프로그램이 비현실적이라는 견해도 있다(이선혜·김은재, 2012). 또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예산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중심으로 책정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강복정, 2012).<sup>20)</sup> 하지만 한국어 교육이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라는 한국인 남편들(최지영, 2013)과 장기 프로그램이 변화 도출과 일반화 등을 위해 필요하며 얻을 것이 많다고 보는 이주여성 활동가들의 의견(이선혜·김은재, 2012)은 현실적인 제약과 이주여성의 언어적 한계 내에서 지원사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보게 한다.

첫째, 지원사업의 이용수준을 높이기 위해 결혼이민여성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도탈락자들을 위해 한국어교육, 상담, 가족교육과 같은 핵심 서비스를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 결혼이민여성이 정착 초기에 식당이나 공장에 취업하게 되면 한국어 습득이 제한되어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취업 기회들로부터 단절될 수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경제활동 욕구를 자제하며 역량강화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도 중요하다. 일례로 이 여성들이 양질의 취업에 요구되는 자격조건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직업탐방 및 체험 기회를 가능한 정착 초기에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단기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 사례관리를 통해 이들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가족의 지원을 격려하고 결혼이민 여성 뿐 아니라 가족의 변화와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지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자주 이용할 수 없다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확보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성과보고서(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a)를 보면 문화상대주의와 강점관점이 그와 같은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길잡이가 된다. 일례로, 한국에서의 결혼생활 적응을 위한 요리교육은 대표적인 동화주의 프로그램으로 지적되는데 창의적인 기관들은 한국요리와 함께 이주여성의 모국요리를 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교육을 맡은 이주여성이 기획안을 작성하게 하여 한국어 역량을 키우는데 활용하였다.

20)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예산 8천만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약 1천 3백만 원에 불과하다(강복정, 2012).

또 이 여성들이 완성된 요리의 일부를 집으로 가져가 가족들과 시식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게 하였다. 즉, 요리교육과 같은 단순한 교육프로그램도 두문화의 활용과 강점을 고려하여 한국인과의 결혼생활에 필요한 이주여성의 역량강화 뿐 아니라 두문화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족의 화합을 동시에 도울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긍정적 변화를 여러 측면에서 촉진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접근은 하나의 서비스를 통해 지원사업의 다양한 세부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서 주목할 만하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보다 장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운영방식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한 것과 유사한 통합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주영(2009: 89)에 따르면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어 교육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적응과 꿈을 향한 지속적인 동기부여 그리고 목적의식을 갖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예를 들어 “인생곡선 그리기 수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생각해보며 삶의 계획을 세우고, “내면 치유의 동화쓰기 수업”으로 심리적 안정을 강화하고 “모국어 동화 소개하기” 수업을 통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는 것이다. 또 “인권을 주제로 하는 한국어” 수업에서 자신의 기본권과 사회권에 대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차별감수성, 주체성 확립, 자기결정 등 인권실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강성의, 2009). 뿐만 아니라 한국생활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한국어 수업과 연계하여 습득하게 하고 재래시장 등의 현장방문을 통한 체험적인 한국어 실습으로 흥미를 높이는 것도 학습효과를 촉진하여 긍정적 변화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의 한국어교육은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희망하는 ‘소통’과 ‘생활’을 도우며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이운정, 2010)을 담고 있어 지원사업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원사업 이용으로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가 희망과 연관됨을 보여주어 이 여성들이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의지를 키우는데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기여함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희망이 심리사회적 안녕 및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보여주는 연구들(Rand and Cheavens, 2009 참조)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원사업의 이용으로 커진 희망이 사회구조적인 이유로 실현되기 어렵다면 오히려 좌절감을 불러올 가능성도 예측해볼 수 있다. 일례로 대부분의 결혼이민여성들이 키워온 취업에 대한 희망은 이주외국인을 배제하는 사회풍조나 기혼여성의 취업에 필수인 자녀돌봄 서비스의 부재로 좌절될 수 있다. 또 지원사업의 이용으로 이 여성들의 역량이 입국초기에 비해 강화되었지만 주류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훈련 등이 필요한데 여의치 못한 재정상황과 가족환경이 그것을 방해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희망이 실현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가족문제나 부부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적극 지원하면, 다문화가정의 안정성도 그와 더불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이용으로 일정 수준의 언어·문화적 역량을 갖춘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이나 진학 또는 여타 방식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개인적 특성과 가족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논점은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이용이 직접 부부갈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참여로 결혼이민여성이 다른 다문화부부들의 생활과 관계들을 엿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결혼과 비교하게 됨으로써(이선희·김은재, 2012) 또는 이주여성의 역량이 강화되어 한국인 남편과 경제력 등에서 역량 격차가 커지거나 소득 분배에 대한 견해 차이로(신영화, 2010) 부부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부부갈등의 발생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결혼이민 여성들의 변화와 성장에 주력하는 동안 한국인 남편들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일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과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남녀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등 인지적 부조화에 기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 합동(2012)은 제 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08-2012)의 추진과정에서 한국인 배우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한 바 있는데, 아울러 한국인 남편들의 취약한 사회경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했던 점도 부부갈등의 발생에 기여했을 수 있을 것이다.

또래 부부들과의 비교를 통한 부부갈등은 다문화부부로서의 정체성을 새로이 구축하는 과정에서 부부친밀이 지지기반이 되지 못할 때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신의 여건이나 배우자에 대한 실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예방차원의 개입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그런 이슈들을 다루는 부부교육 집단프로그램을 가능한 결혼초기에 제공하여 다문화부부들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들을 배우자의 입장과 문화나 젠더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관점의 다각화를 돕는 것이다. 이 부부들이 관점의 다각화를 통해 갈등상황에 내포된 다양한 의미들을 도출할 수 있게 되고 대처방식들에 대해 의견을 나눌 기회를 미리 갖는다면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보다 건설적으로 대응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자제할 수 있게 되어(현경자·박선영, 2012) 부부친밀을 오히려 다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결혼의 안녕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로 초래되는 부부갈등은 남편들에게도 변화와 성장을 위한 기회와 지원이 주어진다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 합동(2012)이 세운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보면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확대, 직업교육훈련 지원, 역량개발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 한국인 남편의 일자리 확대나 역량개발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재하다. 강점관점에서 그런 남편들의 변화와 성장 가능성을 믿고 취업에 필요한 교육,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실업, 기술부재,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남편들이 일할 기회를 얻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 외국인 부인의 성장에 따른 역량 격차로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남편 교육을 제공하고 남편 자조집단을 실시하면서 그런 종류의 부부갈등이 해결되고 가족의 협조를 얻게 되었다는 현장 실천가의 증언(신영화, 2010)은 그런 접근이 꼭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 다문화부부들이 하나의 체계로서 자립에 대한 동기와 희망을 함께 키우고 생산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도 부부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례로 부부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팀으로서 함께 창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포함된 통제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국내에 장기 거주한 결혼이민여성일수록 지원사업의 이용으로 긍정적 변화를 느끼는 정도가 낮다. 이는 본 연구에 자료를 제공해 준 지원사업이 정착 초기의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어 장기거주자들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에 기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자녀세대 성장, 이주여성의 취업욕구 증가, 결혼이민여성 한부모 지원 등 다문화가정의 수요 및 여건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이용이 결혼이민여성 당사자와 결혼생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경로들과 이를 방해하는 경로를 함께 조명하여 지원사업의 이용효과를 높이고 다문화가족의 해체방지에 응용해 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지만, 몇 가지 제한점들이 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선정이 지원기관의 실무자들에 의해 임의표집 되어 지원사업의 참여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과대표집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이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 분석결과와 논의 과정에서 사용된 증가나 감소를 의미하는 표현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긍정적 변화는 서비스 이용의 사전사후 측정으로 파악된 변화가 아니라 지원사업 이용 후의 한 시점에서 이용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변화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긍정적 변화가 예측대로 부부갈등인식, 결혼의 안녕 및 희망과 연관되어 그러한 지표의 동시타당도는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지원사업 이용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그런 경험이 장기적으로도 결혼생활에 위협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종단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끝으로 이 연구에는 비교집단이 포함되지 않아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특정 관점을 적극 반영한 지원사업의 효과인지, 아니면 관점과 상관없는 지원사업의 적극적 이용으로 초래된 것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 향후 이 사업을 실시한 기관들의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문화상대주의와 강점관점에 기반 한 사업수행의 정도에 따라 지원사업의 이용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비록 이와 같은 제한점들이 있지만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이용효과를 여성결혼이민자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의 경험적 근거를 일부나마 확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복정, 2012,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서비스의 현황분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5(1): 143-184.
- 강성의, 2009, “통합적·창의적 한국어 교육 사례 I,” 『다문화가족의 임파워먼트,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3년 사업보고 및 평가』, 117-12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강유진, 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 \_\_\_\_\_, 2010, “인간중심 표현예술치료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7(6): 1411-1430.
-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 김기현, 2008,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서비스기관 이용률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고흥군에 거주하는 이

- 주여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곤·최승희·안정선, 2012,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학지사.
- 김순규·이주재,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5-20.
- 김승권·김유경·조예저·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안나·최승아, 2012,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295-334.
- 김연수, 2010, “가족탄력성 접근을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55-90.
- 김오남,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정해숙·김영옥·마경옥·김효선·이순미, 2012, 『다문화가족지원사업군 심층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주유선·방미화, 2012a,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대응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원·임춘희, 201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27-53.
- 도유록, 2012, “서비스 접근성이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라휘문, 2011,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제고방안”, 『한국정책연구』, 11(1): 43-63.
- 박지영·이창식,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대처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디지털정책연구』, 11(1): 4.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a, “2006 테마기획 다문화가족지원사업 3년 사업보고 및 평가”, 『다문화가족의 임파워먼트,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3년 사업보고 및 평가』.
- \_\_\_\_\_, 2009b,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적응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 서지은·최현미, 2012,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서비스 이용결정 요인분석”, 『사회과학연구』, 28(3): 23-43.
- 서해정·김형모,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359-389.
- 신영화, 2010,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접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2): 161-192.
- 안전행정부, 201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http://www.mospa.go.kr>.
- 엄한진, 2011, 『다문화사회론』, 서울: 소화.
-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 2012,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유가효·홍성희·김성숙, 2008, “결혼이민여성의 초기 적응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95-120.
- 윤혜미, 2009,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임파워먼트 기반의 사회복지실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 61(4): 85-108.
- 이금연, 2003,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이주노동자운동 정책심포지움 자료집.
- 이선혜·김은재, 2012, “다문화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경험 분석: 결혼이주여성 당사자 관점에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4): 319-348.
- 이순목,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이윤정, 2010, “다문화가족 지원 법률과 정책, 제도에 기반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5): 370-378.
- 이주영, 2009, “통합적·창의적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의 임파워먼트,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3년 사업보고 및 평가』, 89-11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이혜경, 2009,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5(4): 147-166.
- 임 혁,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189-221.
- 정상기·정운수,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2): 229-255.
- 정원오·김진구, 2005,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자립전망: 경기지역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3): 35-67.
- 정현숙, 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정혜영·김진우, 2009,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29-55.
- 최정숙·오지영,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미술활동활용 집단프로그램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3: 319-348.
- 최종렬, 2008,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지형과 쟁점,” 『다문화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66-72,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지영, 2013,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부부갈등 경험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경자, 2005, “결혼의 질과 안정을 저해하는 부부갈등 영역: 성별에 따른 유사점과 차이점,”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1(2): 158-193.
- \_\_\_\_\_, 2007, “2006 테마기획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소개 및 1차년도 사업평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1차년도 사업보고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_\_\_\_\_, 2012a,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의 질과 안정: 결혼경로 유형과 지원서비스 이용기간 효과를 중심으로,” 『서석사회과학논총』, 5(2): 9-46.
- \_\_\_\_\_, 2012b, “여성결혼이민자의 두문화정체성과 결혼의 안녕: 관점의 다각화에 기반 한 자기긍정성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4(2): 241-271.
- 현경자·박선영, 2012, “경제적 압박과 저소득층 부부의 친밀성: 남편과 부인의 관점의 다각화와 갈등반응행동의 기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85-411.
- 홍달아기·채옥희, 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지』, 15(5): 729-741.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미경, 20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의 다문화 역량과 서비스 질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5(2): 115-145.

- Anderson, J., and Gerbing, D.,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243-277, in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edited by Marcoulides, G., and Schumacker, R.,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ochner, S., 1986, "Coping with unfamiliar cultures: Adjustment or culture learning?",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38(3): 347-358.
- Booth, A., Johnson, D., and Edwards, J., 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2): 387-394.
- Cohen, J., and Cohen, P.,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Crohan, S., and Veroff, J., 1989, "Dimensions of marital well-being among White and Black Newlywe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373-83.
- Curran, P., West, S., and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Day, R., and Acock, A., 2013, "Marital well-being and religiousness as mediated by relational virtue and e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5: 164-177.
- Diener, E., and Larsen, R., 1993, "The experience of emotional well-being", 405-415, in *The Handbook of Emotions*, edited by Lewis, M., and Haviland, J., NY: Guilford Press.
- Enders, C., and Bandalos, D., 2001, "The relative performance of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or missing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8: 430-457.
- Fincham, F. D., and Beach, S. R., 1999, "Marital conflict : Implications for working with coupl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 47-77.
- Fredrickson, B., 2000, "Cultivating positive emotions to optimize health and well-being", *Prevention and Treatment*, 3: 1-24.
- Hu, L., and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Kishton, J. M., and Widaman, K. F., 1994, "Unidimensional versus domain representative parceling of questionnaire items: An empirical ex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 757-765.
- Kline, R.,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Y: Guilford.
- MacKinnon, D., Krull, J., and Lockwood, C., 2000,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 *Prevention Science*, 1: 173-181.
- Miley, K., O'Melia, M., and DuBois, B., 2001,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An Empowering Approach*,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Rand, K., and Cheavens, J., 2009, "Hope theory," 323-333, in *The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edited by Lopez, S., and Snyder, C., NY: Oxford University Press.
- Ruvolo, A., 1998, "Marital well-being and general happiness of newlywed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4): 470-489.

Saleebey, D., 2013,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6th ed, MA: Allyn and Bacon.

Schumm, W., Paff-Bergen, L., Hatch, R., Obiorah, F., Copeland, J., Meens, L., and Bugaighis, M., 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81-387.

Seligman, M. P., 2002, *Authentic Happiness*, NY: Arthur Pine Associates, Inc.

Shweder, R., 1991, *Thinking Through Cultur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nyder, C. 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ew York: Free Press.

\_\_\_\_\_, 2000, "The past and possible futures of hop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1), 11-28.

\_\_\_\_\_, Harris, C., Anderson, J., Holleran, S., Irving, L., Sigmon, S., Yoshinobu, L., Gibb, J., Langelle, C., and Harney, P., 1991, "The will and the ways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 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70-585.

Zimet, G. D., Dahlem, N., Zimet, S., and Farley, G.,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 Uti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and Marital Well-Being and Hope among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

## -A Focus on Participants of the Support Project Based on Cultural Relativism and a Strengths Perspective-

Hyun, Kyoungja

(Center for Woori Social Work Research)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ject provides support services to female marriage immigrants to promote their settlement in Korea and their adaptation to marital life. This study thus investigated whether utilization of such support services is indeed related to positive changes perceived among th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these changes, in turn, contribute to less marital conflict, marital well-being, and hope. Data were drawn from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tudy in which 558 female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ed through the 36 centers across the nation that provide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based on cultural relativism and a strengths perspectiv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revealed that utilization of support services, as predicted, contributed to positive changes, and such changes, in turn, were directly related to less marital conflict, higher marital well-being, and hope. As expected, marital conflic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marital well-being, which, in turn, promoted hope. Thus, through these paths positive changes also contributed positively to both marital well-being and hope. However, when the effects of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and an ability to command Korean language were controlled for, a positiv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utilization and marital conflict was revealed.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d the ways in which positive functions of such service utilization can be strengthened while at the same time actively addressing the dysfunctional components of such support services.

Key words: female marriage immigran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ject, marital well-being, marital conflict, hope

[논문 접수일 : 13. 07. 01, 심사일 : 13. 7. 5, 게재 확정일 : 14. 05. 14]

### 허용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박사후연구원. 최근 논문으로는 “A Comparative Study of Housing in Korea and Singapore”(University of York, unpublished PhD thesis, 2012), “싱가포르의 주택정책과 복지국가: 고층동 정부까지를 중심으로”(『사회복지정책』, 40(3), 2013)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국가 발달사, 주택정책 비교연구, 사회서비스와 복지국가 등임.  
E-mail: heoyc1@gmail.com

### 현경자

우리사회복지연구소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을 하고 있음. 최근의 주요논문으로 “중도장애, 이혼과 같은 생애위기 경험자의 자기해석 복잡성과 심리적 안녕: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의 매개효과”(『한국사회복지학』, 62(4), 2010), “경제적 압박과 저소득층 부부의 친밀성: 남편과 부인의 관점의 다각화와 갈등반응행동의 기제 연구”(『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2012, 공저), “여성결혼이민자의 두문화정체성과 결혼의 안녕: 관점의 다각화에 기반 한 자기긍정성의 매개효과”(『한국사회복지학』, 64(2), 2012)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사회심리를 응용한 임상실천치식 개발, 다문화가족복지, 사회문화적 소수자의 역량강화임.  
E-mail: swwhyun22@hanmail.net

### 남일성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주요 논문으로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the Texas Revised Inventory of Grief”(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ervices, 93(1), 65-73.), “Is student debt jeopardizing the long-term financial health of U.S. households?”(Review of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95(5), 405-424.)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정신건강, 건강불평등, 사별, 복잡성 비애감, 경제적 곤란 등임.  
E-mail: ilsungn@hallym.ac.kr

### 박명숙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의 주요논문으로 “장애여성들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결혼불안정성을 중심으로”(『한국장애인복지학』, 20, 2013), “형제자매들에게 발생한 아동학대가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청소년학연구』, 18(4), 2011), “학대피해아동 형제자매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써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피해자학연구』, 19(1), 2011)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 등임.  
E-mail: mspark@sangji.ac.kr

### 이재경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최근의 주요논문과 저서로 “주류광고가 비음주경험 청소년의 음주의도에 미치는 영향”(『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4), 2012), “문제음주 영향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경향 메타분석”(『한국알코올과학회지』, 14(2), 2013), 『중독에 대한 100가지 오해와 진실』, (중독포럼, 2013,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정신건강(알코올 및 중독), 아동·청소년복지임.  
E-mail: good-man0424@daum.net

### 최옥채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의 논문으로 “김만두 비평: 그의 실천경험과 연구문헌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65(4)), 저술로는 『얕은 욕망과 깊은 열등감: 범죄에 관한 인문학적 이해』, (양서원, 2012) 등이 있음. 현재 “한국 사회복지실천 정체성 비평”과 『한국 사회복지학 통설』을 준비하고 있음.  
E-mail : okchai@jnu.ac.kr